

#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관계

유경훈<sup>1\*</sup>

<sup>1</sup>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Kyoung-Hoon Lew<sup>1\*</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적응과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 간의 상호관련성과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초4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 자료수집에 응한 5학년 아동 2254명(남;1174, 여;1080)이다. 변수 구성은 학교적응(수업적응, 규칙적응, 또래관계, 교사관계), 자존감,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10개 과목의 자기보고식평가, 학업만족도 문항)로 구성하였다.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PAS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와 구조모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설명력이 있었으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학업성취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은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utilized the NYPI'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nationwide for 2012.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2,254 5th grade students' data. It was found that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djustment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school adjustment indirectly explain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teacher and institu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 1. 서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습자의 개인변인 가운데 정의적인 특성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등은 최근에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변인이다.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자존감은 자신이 의도한 학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행위를 조직하여 실행해나가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1].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기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2]. 자존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자신의 수행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oon Lew(Soongsil Univ.)

Tel: +82-2-2277-1666 email: lewkh@ssu.ac.kr

Received May 22, 2013

Revised (1st May 31, 2013, 2nd June 5, 2013)

Accepted June 7, 2013

며 학습과제를 더 가치롭게 판단하며 높은 수준의 과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정서와 정보 및 경제적 지원은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증진된 자존감은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4]. 어떤 과제에 대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거나 자기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존감은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재선, 서은국[5]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학업성취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6]은 학업성취와 삶의 행복도가 상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삶의 질은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학교환경과 함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 존중감, 교실환경 특성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7-10].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유발되는가에 대한 문헌연구들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학교환경은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는 학습자가 대부분의 학습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습과정이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이다[11]. 교실은 물리적 환경(지위환경)과 심리적 환경(과정환경)으로 구분된다. 심리적 환경은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격려와 지지, 학업지도 및 관심, 조언이나 배려, 또래와의 우정, 학교 교사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환경이 학업성취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12]와 심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가 지배적인 현상이다[13-17]. 학교환경 연구의 한결 같은 공통점은 교실환경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우리 교육상황에서도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에 관한 개인적인 변인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구들에 대하여 이러한 개인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또래 등의 학교변인 또한 환경변인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학업성취와 학교환경변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학교적응과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설

명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학교환경으로 볼 수 있는 학교적응과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변인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를 설명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적인 관련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환경조성 및 정서요인을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5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층화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여 16개 시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표본학교들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선정된 학교들에서 시도 표본학교를 선정하여 해당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18]. 2012년도 자료수집에 응한 2253명(남;1177(52.1%), 여;1080(47.9%))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 2.2 연구변수의 구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2’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시간의 흐름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 조사모형과 내용을 설계하고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자한다[19].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와 전문가의 구성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잠재변인으로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를 구성하였다. 학교적응변인의 측정변인은 수업적응, 규칙적응, 또래관계의 각각 다섯 문항으로 신뢰도는 각각 .715, .784, .842, .861로 나타났다. 자존감 10문항은 신뢰도 .824이며, 삶의 만족도는 4개의 하위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83이고 학업성취는 10개의 교과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물어본 문항으로 신뢰도는 .807 이었다.

문항내용은 학교적응은 수업시간이 재미있음, 숙제를 빠뜨리지 않음, 수업시간에 배운내용을 잘 알고 있음,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봄 등이며 자존감 문항은 나는 장점이 많다, 나는 남들만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삶의 만족도는 사느게 즐거움, 걱정거리가 없음, 행복함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업만족은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 2.2.1 학교적응

학교적응의 구성문항은 수업적응, 규칙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묻는 각 5문항씩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적응은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규칙은 학교에서 부과된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지내는 지, 교사관계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1점에서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측정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이라는 잠재변인을 설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경우 10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문항 4개를 제외한 문항들을 역산처리 하여 모든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2.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의 경우 쾌락주의적 접근에서는 정서적 또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연구되어 왔다. 정서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서 높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의 문항 중 삶의 만족도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2.2.4 학업성취

학업성취 지난 한 학기동안 10과목에 대하여 공부할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전반적인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하였으며,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질문을 또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고 학업성취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나의 하위변인

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들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 2.3 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구하여 검증하였고, 각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과 예측된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어느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2.4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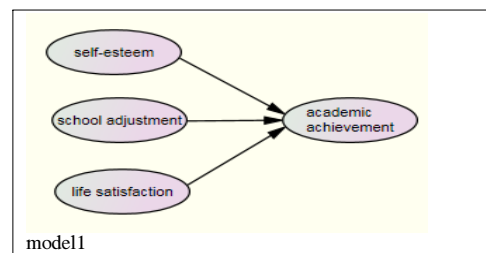
#### 2.4.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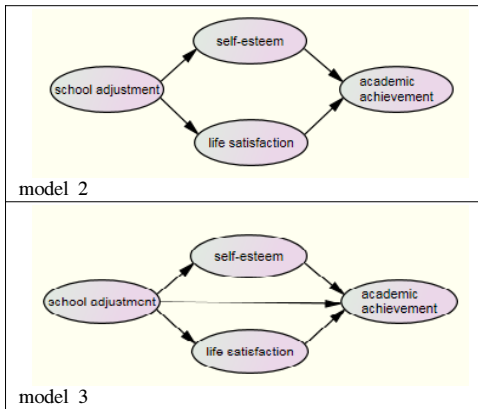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model 1은 단순모형이며 model 2는 완전매개 모형, model 3은 부분매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Fig. 1 참조).

#### 2.4.2 연구문제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만족도 변인들은 어떠한 경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1 :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 :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 :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 :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4 :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가 증가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 3. 연구 결과

#### 3.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각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교사관계(3.12), 규칙적응(3.02), 또래관계(3.10), 수업적응(2.9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인 영역인 자존감의 평균은 자존감a(3.12), 자존감b(3.09)의 순으로 삶의 만족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인 학업b(3.72),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인 학업a(3.71), 성적 만족수준(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있고, 첨도 또한 절대 값 '10'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규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2253)

	M	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d. Error
Adapt- class	2.98	.53	-.49	.05	.78	.10
Adapt -rules	3.02	.54	-.36	.05	.64	.10
Peer relate	3.10	.47	-.32	.05	.15	.10
Teacher	3.12	.66	-.52	.05	-.01	.10
self_ a	3.12	.52	-.17	.05	-.10	.10
self_ b	3.09	.49	-.12	.05	-.03	.10
life_satis.	3.26	.63	-.63	.05	.26	.10
academica	3.71	.73	-.28	.05	.09	.10
academica	3.72	.74	-.24	.05	-.02	.10
study-satis	3.03	.74	-.47	.05	.03	.10

#### 3.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제 변인들의 상관은  $r=.21\sim.59$ 의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observed variables

	1	2	3	4	5	6	7	8
1.Adapt class	1							
2.Adapt rules	.50	1						
3.Peer_relate	.45	.41	1					
4.Teacher	.47	.47	.38	1				
5.academica	.44	.36	.37	.28	1			
6.academicb	.32	.33	.32	.28	.52	1		
7.study-satis	.27	.21	.21	.13	.46	.27	1	
8.self-esteem	.39	.40	.36	.33	.42	.37	.37	1
9.Life_Satis.	.34	.32	.35	.34	.25	.24	.29	.59

\* 모든 변인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3.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학교적응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세 가지 유형의 구조모형이 설정되었다. 각 구조모형의 설정근거는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선행연구들[2,3,5,6,12-14]을 바탕으로 하였다. 어떠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적합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에 대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비교모형들은 연구모형에 nested되어 있고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의 직접, 간접 경로가 제거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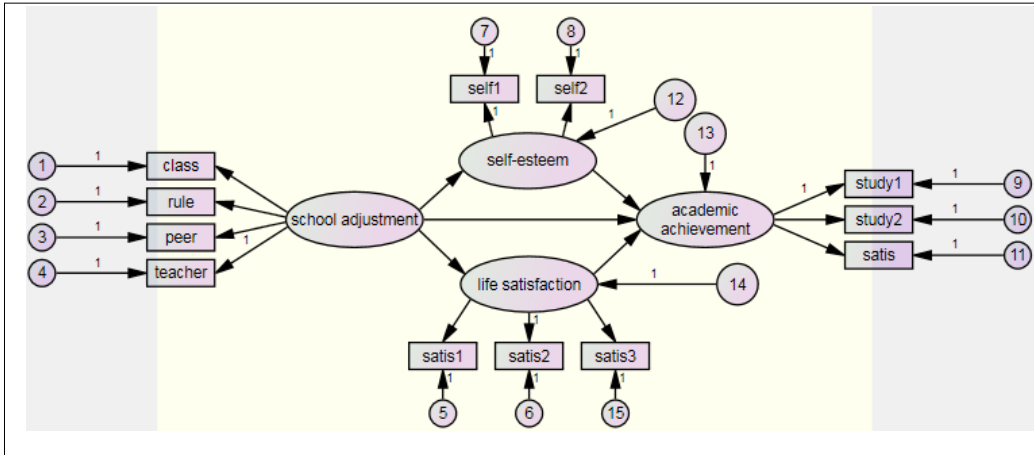
[Table 3]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chi^2$	df	p	TLI	CFI	NFI	RMSEA
model 1	2047.48	51	.000	.75	.81	.81	.13
model 2	828.01	50	.000	.87	.92	.92	.08
model 3	804.00	49	.000	.89	.93	.93	.08

위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model 2와 model3이 비교적 적합한 모형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df의 값이 1 감소할 때  $\chi^2$ 의 값이 24이상 감소하여 model3을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위의 적합도가 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chi^2$ 은 기각되었으나( $p < .001$ ),  $\chi^2$ 은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유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적합지수들을 살펴보았다. 다른 적합지수는 양호하여 이들 측정변수들이 실제 연구의 구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합도를 나타내는 GFI는 .90보다

높을수록 바람직한데, 부분매개모형에서 GFI는 .93으로 나타나 만족스러웠다. RMSEA는 오차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08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인 NFI는 모두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제시된 모형의 수치는 .93 으로 기대치인 .9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Fig. 2] Final model

### 3.4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Model 3의 연구모형은 수용할 만한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적응과 자존감, 삶의만족도 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들임을 알 수 있다. 자존감→학교적응의 경로계수는 .697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학교적응(.651), 학업성취→학교적응(.60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자존감(.313), 학업성취→만족도(.209)가 다음순서로 의미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경로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존감 a(.892), 자존감b(.793)도 잠재변인인 자존감과 의미있는 설명력을 보였으며 만족3(.634), 만족2(.835), 만족1(.867)의 문항도 삶의 만족도를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학업성취1(.824), 학업성취2(.632), 학업만족(.542)도 학업성취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환경적인 변인인 학교적응은 학업성취를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삶의만족도와 자존감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Solution for the final approved models

	Estimate	S.E.	C.R.
s.e. ← s.a.	.697	.035	23.051***
l.s. ← s.a.	.651	.046	19.268***
a.a ← s.e.	.313	.048	8.495***
a.a ← l.s.	.209	.038	-6.194***
a.a ← s.a.	.607	.079	11.681***
teacher←	.612	-	-
peer←	.617	.030	23.108***
rule←	.663	.037	24.351***
class←	.702	.029	25.301***
self1←	.892	-	-
self2←	.793	.024	35.158***
satis1←	.634	-	-
satis2←	.835	.037	30.930***
satis3←	.867	.033	30.663***
study1←	.824	-	-
study2←	.632	.032	25.683***
satis←	.542	.029	22.513***

\*\*\*  $p < .001$

s.a: school adjustment, s.e: self-esteem, l.s:life satisfaction, a.a:academic achievement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학업성취의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업성취에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와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흥미를 느끼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등의 수업적응과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등의 수업이외의 일에 대하여 잘 적응하는 능력 및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가 높다고 제시한 연구[12-14]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이 장점이 있다고 느끼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지며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거나 걱정이 없다고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 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2]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과 삶의 상관을 밝힌 이지연, 하정희, 전수현[21]의 연구나 삶의 만족도인 행복과의 연관성을 밝힌 이화인[2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적응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이는 또한 학업성취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나 교사가 아동에게 따뜻하고 관심과 격려,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경우 자녀들은 행복감 또는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Piko와 Hamvai의 연구[23]와 Saha, Huebner, Suldo, Valois[24]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일을 책임있게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방법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가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거나 미소 짓거나, 칭찬하는 등의 강화를 할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결과[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또래관계를 맺는지가 아동의 행

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선생님에게 인사하기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교사는 아동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학교적응은 아동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어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이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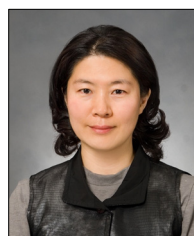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한 연구로써 학교적응과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기 동안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학업성취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Bandura, A., Exercise of Human Agency Through Collective Efficacy Current Dir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9, 75-78, 1997.
- [2] Kim, U., Park, Y., & Koo, J., Adolescent culture, socialization practice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Special)*, 177-209, 2004.
- [3] Meece, J. L., Blumenfield, P. C. & Hoyle, R. H.,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0.4.514>
- [4] Y.S. Park, & U.C. Kim, & K.S. Chung,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3), 37-59, 2004.
- [5] Jai Sun Koo, Eun Kook Suh, "Happiness Predicts O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6(2), 35-50, 2012.
- [6] Park, Y.S. & Kim, U.C.,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friends: With specific focus on self-efficacy,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6(3), 385-422, 2010.

- [7] D. H. Ahn, J. A. Kim, S. Y. Hwang, Perceived Competence, Family Processes, School Climate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199-1217, 2005.
- [8] Covington, M. V., & Dray, E., The developmental cour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 need-based approach. In A. Wigfield & J. S.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33-56). San Diego: Academic Press, 2002.  
DOI: <http://dx.doi.org/10.1016/B978-012750053-9/50004-8>
- [9] Stipek, D., *Motivation to learn: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2002.
- [10] Zsolnai, A.,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chievement, 22(3), 317-329, 2002.
- [11] Bradley, R. H., Caldwell, E. A.,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 A ten-year follow-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4), 852-867, 1988.  
DOI: <http://dx.doi.org/10.2307/1130253>
- [12] Tannenbaum, R. S., Education or training: reflections on a life in computing, *Educom Review* 34(1), 10-14, 1999.
- [13] H.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agnostic Measurements of Crea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4), 269-303. 1999.
- [14] Hennessey, B. A. & Amabile, T. M., Consensual assessment. In M. A. Runco & S. R. Pritzke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Oval Road, London: Academic Press 347-360, 1999.
- [15] Mumford, D. D. & Gustafson, S. B., Creativity syndrom : Integration, application, and inno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27-43,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3.1.27>
- [16] Davis, A., Barriers to creativity and creative attitudes, In Runco, M.A., & Pritzker, S. T.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 2, San Diego, 1999.
- [17] Trickett, E., & Moos, R., Social environment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 93-102, 1973.  
DOI: <http://dx.doi.org/10.1037/h0034823>
- [18]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VII: A Study of Children & Adolescent Panel Survey in 2012, User guide, Seoul: Korea Youth Panel Survey, 2012
- [19] J. K. Kim et al.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VII: A Study of Children & Adolescent Panel Survey in 2010, National Youth Police Institute research reports 2009(1), 3-15. 2009
- [20] Browne, M. W., & Cude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1993.
- [21] J. Y. Lee, J. H. Ha, S. H. Jeon, "The Effects of Parents' Interacting Modes in Achievement Settings on Adolescents'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Educational Psychology*, 20(4), 873-890, 2006.
- [22]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2(1), 97-107, 2008.
- [23] Piko, B. & Hamvai, C.,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79-148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childyouth.2010.07.007>
- [24]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2010.  
DOI: <http://dx.doi.org/10.1007/s12187-009-9050-x>
- [25] S.H. Kim, O.B. Jung, Maternal overprotection,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3), 69-92, 2011.

**유 경 훈(Kyoung-Hoon Lew) [정회원]**



- 1995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발달, 창의성교육, 영재교육